

건축가는 다방면에서 깊이 공부하고 노력하여 어느 분야에서든지 뛰어난 재능을 가져야 한다고 선배들이 이야기 하곤 한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는 글재주가 없다.

물론 학창시절엔 글솜씨를 발휘하여 몇번의 수상경험도 있지만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경력(?)일 것이다.

어느 한가지만 잘하면 입학할 수 있는 일본의 어느 대학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매우 뜻깊게 생각 되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대학을 나와야,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 받는다. 김매고 추수하는 농사일은 농사일에 오랫동안 전념하고 땀 흘리며 노력한 농부가 제일 잘해낼 터인데 명문대학을 졸업했다고 농사를 잘짓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건축은 고민하는 작업이다

Architecture is Work in Agony

이성인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익
by Lee Seong-In

건축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건축에 얼마나 빠져드느냐, 노력하느냐, 고민하느냐,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맡기는가 하는 것이 훌륭한 건축가를 만드는 기본적인 것일 것이다. 물론 그외의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하겠지만 ...

그러나 건축을 사랑하고 투자하기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안다. 조금이라도 설계비를 낮추려는 건축주, 어쨌거나 빠른 시일내에 적당히 시공해서 시공비 챙기고 떠나려는 건축시공자, 그러면서도 최고의 건물 운운하는 사람들. 또한 시간이 없다며 재촉하는 장사꾼들. 공장에서 고무신 찍어내듯 척척 만들어 내길 기대하는 상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건축을 해보려는 순정과 젊은 건축가들을 억누르는 지배자 역할을 참 잘도 수행하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위를 모자이크하는 건축사의 역할을 생각할 때 매일매일 나의 작업은 두려운 내일, 두려운 작업의 연속이다.

많은 잡지와 인쇄물을 통하여 쏟아지는 건축작품들을 본다.

비평하는 이나 건축가나 왜 그리 스스로 세련된 사람들이 많은건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단어는 왜 그리 많이 사용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드는 건지... 건축은 쉬워야 한다.

건축은 감각적인 작업이고 즉흥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인간에게 가

장 가까이 있는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원시인이 필요해서 집을 짓듯이, 비를 피하기 위해 지붕을 덮듯이 건축 자체는 쉽고 편안한 것이어야 한다.

잡지사에서 부탁이 들어오면 완성된 작품의 스케치 작업을 왜 새로 해서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게 살고 싶다.

건축 초년생 시절 상사가 요구하는 것에 단하나라도 나의 것을 표현하고 싶어했던 시절들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투쟁인지 나의 아집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이제는 그런 고민이 아닌 건축가의 길과 사업가의 길에서 방향해야 하는 어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다. 직원들 봉급 걱정, 일에 대한 수주 허가권자와의 관계 유지... 이런 걱정없이 건축에만 몰두할 수는 없을까?(이 이야기에 대해 서울지역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역 특성상의 문제점이 있다.)

몇년전 부산 ○○호텔 계획중 건축팀, 설비팀, 구조팀 등등이 함께 모여 계획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야기 도중 건축팀장이 "이곳은 국제적 관광지 이므로 욕실을 크게 하고 특히 욕조는 2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를 변경하자"라고 말하자 나머지 사람들은 그말이 농담같이 들렸는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때 나는 그 팀장의 말에 깊이 동감했고 웃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 할수 없었다.

건축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인간을 이해할 줄 알아야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대학시절 어느 교수님 말씀이 떠오른다

지오폴티의 「건축예찬」을 대학시절에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그중 건축과 종교라는 글에서 비문화적이고 화가도 아니며 예술가도 아닌 농촌의 농부들이 예배당의 벽화를 손질한 기적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농부들의 깊은 신앙과 열정·헌신이 원래 그림을 그린 삶의 열정과 같았기에 그결과 똑같이 아름다운 벽화를 재생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이며 결코 기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저자와 같은 것이었다. 건축가의 건축에 대한 작업행위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건축에 대한 열정, 신앙심(?) 절대자에 대한 겸허함 같이 건축행위

앞에서 피조물과 같은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건축은 쉬워야 한다. 깊은 겨울, 넓은 잔디밭에 눈이 하얗게 쌓이고 아침이 되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된다.

어느 일정한 지점을 오가는 행인의 발길은 직선이 제일 가까운 길일텐데 결코 직선을 이루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이 된다. 이것을 슬라폼이라 한다. 길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걷는 곳에 길을 만들어야 한다.

건축물에서 그곳을 올라가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면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 멀리 바다가 보고 싶다면 벽면을 개방하고 전망시설을 만들고 쉬고 싶은 욕망이 든다면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작품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의 대답은 늘상 똑같다 "아직 내 작품은 없습니다"

사실이다. 아직은 나의 작품이라고 할만한 것은 전혀 없다. 이제까지의 작업들의 결과는 부끄러운 산물일 뿐이다. 내나이 약 50대쯤이면 내작품이라고 할만한 것이 생길까? 다행이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아직 시공중이거나 시행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승효상씨의 작품인 수출당이 참 좋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미술평론가인 건축주 유흥준씨의 건축에 대한 생각이 더 좋았고 건축을 보는 눈, 건축을 이해하는 건축가를 알아주는 모습이 좋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좋은 건축가와 훌륭한 건축주의 만남이라고 본다.

건축은 고민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그 고민거리를 해결해 나가는 일이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공부며 정답도 없고 완성도 없다.

그래서 건축은 매력있으며 해볼만한 일이다.

그 매력에 반해 오늘도 늦은밤 나의 작업실은 불이 밝다.